

# 주간기도정보

2025. 9. 16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군선교 통한 청년세대 복음화 이루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 비전2030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가 지난 9일 대전 새로남교회(오정호 담임목사)에서 ‘군선교 비전2030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군종목사단, 군선교연합회 전국지회, 결연교회, 유관 기관 및 군선교사들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군부대 통폐합, 군내 스마트기기 사용 허용 등 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군선교의 현재를 점검하며, 청년세대를 복음으로 살리는 사명과 전략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컨퍼런스에서는 비전2020실천운동을 계승하여 2030년까지 매년 10만 명씩(신규 세례자 6만 명, 기존 세례자 4만 명), 10년간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파송하는 ‘비전203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언, 패널토의 등이 있었다.

먼저 이날 오전 행사로 새로남교회 3층 본당 글로리아홀에서 열린 한국군종목사단 직능역량강화 세미나에서 강사로 섬긴 오정호 군선교연합회 공동회장은 목회자의 정체성과 소명을 강조하며 “목사는 선비의 절개보다 더 높은 차원의 소명과 정결함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진섭 군종목사(21사단)는 ‘비전2030 중간평가 및 제언’에 대한 발제에서 “과거 비전2020실천운동이 세례 운동에 중점을 두었다면 현 비전2030실천운동은 파송 운동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성과를 계승하는 동시에 한계를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군종목사(문무대교회)는 ‘결연축제 사역보고 및 제언’에서 6·25 구국성회를 통한 결연축제 사역의 성과와 가능성을 제시했고, 백명규 해군 군종목사(해군본부 군종실)는 해군 군선교 현황으로 해군과 해병대의 ‘민수기 프로젝트’, ‘디모데 프로젝트’ 등 예배와 양육 중심 사역을 보고했다.

이명성 군종목사(공군1전투비행단)는 공군 군선교 현황을 나누며, ‘크선멘’이라는 앱을 통한 신앙 멘토링 플랫폼을 소개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용재 군선교사는 군선교에 대한 제언에서 MZ세대 용사들의 특성과 환경을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다가가 친밀함을 통해 양육하고 예배하고 파송하는 전략을 소개했다.

이 외에도 옥수석 목사는 ‘군세례자-지역교회결연에 대한 제언’을 통해 지역교회에서 이뤄지는 결연 사역의 결과와 발전 방안을 소개하고, 도현우 전도사는 오메가교회의 교회 결연 사례를, 김봉석 목사는 CCC를 통해 진행한 결연 사례를 발표해 청중들의 뜨거운 관심과 활발한 질의를 이끌어냈다.

군선교연합회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비전2030운동이 성과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했다”며 “하지만 청년세대를 복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들을 공유한 것은 공통적이었다. 방법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지만, 청년 사랑, 교회 사랑, 군대 사랑은 동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민간교회와 군인교회의 협력과 기도, 교단의 정책적 지원, 군선교연합회와 함께하는 연합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며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군선교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5년간 더욱 군선교에 매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사도행전 5:42)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요한1서 2:13-14)

하나님, 50만여 명의 군장병들을 품고 청년세대를 복음으로 살리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군선교 사역자들과 단체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전2030’과 모든 군선교 사역을 축복하사 이 일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통로되게 하소서. 군 복무의 기간이 주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임을 한국교회가 인식하며 장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함에 함께 협력하고 기도함으로 힘써 둡게 하옵소서. 죄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자를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도록 하늘의 꿈을 품게 하소서.

## 2. 북한을 위한 기도

###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북한 장애 영아 살해, 장애인 의학 실험 중단하라”

‘인권 국가’ 이미지를 선전하지만 왜곡된 인식과 제도적 방치로 고통에 내몰려...



북한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학 실험을 하고 장애 영아를 살해하며 여성에게 강제 불임 시술과 낙태를 시행한다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가 지난 3일(현지시간) 밝힌 것으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가 4일 보도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국가가 장애인들의 인권을 남용한다고 지목하고 장애인들이 ‘낙인’과 ‘부정적 사회적 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분리·격리되고 있으며, 단신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외딴 정착지에 수용되어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장애인을 지원하는 노력을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을 사라지게 하고 끔찍한 대우를 가함으로써 인구를 체계적으로 ‘정화’한다는 오랜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보고서는 특히 정신사회적 장애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실시된다고 알려진 ‘의학적·과학적 실험’을 지목하고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또 의료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상태에서 자행된 ‘장애 아동의 영아살해’에 관한 보고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우생학적이고 차별적인 의료 정책과 관행의 지속,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사형 집행 의혹에 대해 우려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여성 장애인들이 심각한 학대를 당하는 취약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성, 재생산 건강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교육, 고용, 복지, 지도력 기회가 차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 강제 결혼, 강간, 납치, 인신매매에 자주 노출되며 강제 불임 시술, 낙태를 당한다고 우려했다. 그 밖에 많은 장애인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불복종이나 ‘비생산적’이라는 이유로 독방에 가두는 등 굴욕적 처우를 하며, 의료와 기본 필수품 접근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북한 장애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국가가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점과 북한 사회의 무지와 “적대적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며 교육 등을 통한 인식 제고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반면 북한 당국은 대외적으로 복지 정책과 권리 보장을 강조하며 ‘인권 국가’ 이미지를 선전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사회적 멸시와 조롱 속에 집 밖으로 나서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황해북도 송림시에서는 선천성 척추 기형을 앓는 한 19세 청년이 아이들의 조롱을 받다 그의 어머니와 학부모들 간 충돌로 번진 사건도 발생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장애자가 집 밖에 나오면 온 가족이 주목과 멸시 속에 살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편견이 뿌리 깊다. 이처럼 북한 사회의 왜곡된 인식과 제도적 방치가 겹쳐 장애인들은 구조적 차별과 일상적 고통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출처: 뉴시스, 데일리NK 종합).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이사야 43:7)**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밭을 다 절더라(사무엘하 9:7,13)**

하나님, 마치 인권 국가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을 향해 끔찍하고 부당한 대우를 자행해 마치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처럼 취급하고 배제하려는 북한 사회를 꾸짖어 주소서. 이 나라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사상을 파하여 주시고 인권유린을 당하는 고통에서 모든 장애인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어두운 심령을 밝히사 눈에 보여지고 감각되는 육체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주께서 지으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항상 왕의 식탁에서 그 은총을 누렸던 므비보셋과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예수 생명들이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나이다”**

**소아·청소년 우울증, 5년간 72% 급증…**

**사춘기와 혼동 짓아 방치되기 쉬워…자살·자해 위기 심각**



소아·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최근 5년간 70% 넘게 증가해 8만6천여 명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사춘기 반응과 우울증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우울증 환자는 2020년 4만9,983명에서 지난해 8만6,254명으로 72.6%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환자는 같은 기간 4만8,645명에서 8만3,520명으로 71.7% 늘었고, 10세 미만 환자도 1,338명에서 2,734명으로 104.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우울증 환자가 32.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10대와 어린이 환자 증가 폭이 두드러진 셈이다.

소아 우울증은 우울감·의욕 저하가 주요 증상이며, 집중력 저하, 불면, 식욕 변화 등이 동반된다. 본인이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짜증이나 예민한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사춘기와 혼동되기 쉽다. 김재원 서울 대병원 교수는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중학교에서 갑자기 부진하다면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보다 우울증에 따른 집중력 저하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소아 우울증의 증가세는 자살 및 자해 시도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서울 지역에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한 학생 수는 무려 1,066% 폭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서울 지역 자살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11%, 2020년 대비 182% 증가했고, 자살 시도·자해 학생 수도 전년 대비 113%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자살한 학생 수는 22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이미 6월까지 10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울증 증가가 단순한 통계 수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회적 위기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소아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재원 교수는 “스마트폰이나 게임보다 적절한 신체 활동을 통해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부모가 직접 나서 아이에게 ‘숨 돌릴 틈’을 만들어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 우울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과제다. 특히 아이들의 마음과 생명이 위협받는 이 현실 앞에서, 교회는 기도로 깨어 아이들을 품고 지켜야 한다.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힘을 모을 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영적 울타리가 될 때, 다음세대는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출처: 연합뉴스, 문화일보, 기도24·365본부 종합).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편 16:1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에베소서 2:1-2)**

하나님, 소아·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지만 뚜렷한 해결책 없이 자해와 자살 문제로까지 이어져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상황을 돌아봐 주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워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복음을 가진 교회와 부모가 진리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상황과 조건에 휘둘려 사단의 종노릇 하는 다음세대가 아닌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한 영혼들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원한 즐거움과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이 땅과 열방에 복음을 몰라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다음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